

## 아름다운 어촌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관광객들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하루 빌려  
쓰는 만큼  
자신이 돌아간 후에도  
어업인들이 계속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신이 다녀간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신 소중한 추억은  
가슴에 가득 안고  
마을을 떠날 수 있다.

우리 협회가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진행하여 온지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든다. 지난 6년 동안 본 행사를 통해 102곳의 어촌마을을 방문했  
고, 올해도 약 20여 차례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란 지난 2004년부터 도시민들을 아름다운  
어촌으로 방문을 유도하여 색다른 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에는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참가비의 50% 이상을 농림수산식품부(구, 해양수산  
부 포함)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저렴하면서 수준 높은 어촌체험여행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의 사업담당자로서 많은 분들이 좋은 취지의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는 어촌과 수산업 바로 알기

제1회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는 2004년 바다의 날 기념행사의 일  
환으로 일회성 이벤트로 기획되었다. 당초 일반여행사에 일임하여 진행할 계  
획이었으나, 보다 어촌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회에서 직  
접 관리하자고 시작한 것이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고, 어촌관광을 통한 어업  
인들의 소득향상도 기대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  
하여 현재의 행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 바다관광 |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가 일반적인 여행상품과 다른 점은 관광객만을 고객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어민들 역시 주요 고객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어촌에서 숙박과 식사를 원칙으로 하며, 주변의 수산시설 및 지역문 화관광 등과 연계하여 1박 2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는 아마추어 관광을 지향한다. 휴양지의 리조트처럼 편안하고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어촌관광만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어민들은 1박 2일 동안 자신들의 삶의 공간으로 마을을 찾아

주는 관광객들을 초대하여 생계수단이 되는 어장을 공유한다. 그리고 마을에서 나는 특산물로 정성스레 관광객을 대접한다. 관광객들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하루 빌려 쓰는 만큼 자신이 돌아간 후에도 어업인들이 계속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신이 다녀간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신 소중한 추억은 가슴에 가득 안고 마을을 떠날 수 있다.

###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의 준비과정

관광객들은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http://www.seantour.com))를



\* 정치망그물을 함께 당겨보는 어민들과 관광객(거제 쌍근마을)  
\*\*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부녀회원

통해 행사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예약을 한다. 드디어 행사 당일 도시를 출발해 아름다운 어촌에서 맛있는 수산물을 푸짐하게 먹으며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관광객들의 즐거운 1박 2일을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연초 행사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시기성을 고려하여 행사일정에 한달 정도 앞서 마을을 방문한다. 이때 전문여행사, 지자체 어촌관광 담당자 등과 동행하여 어촌주민들을 만난다. 어촌관광의 최전선에 있는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을의 자원들을 돌아보고

동선과 관광객의 안전 및 흥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1박 2일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렇게 행사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우리 협회는 바다여행 사이트 및 주요 언론사를 통해 행사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모집하며 마을의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등 여러 행정적인 준비를 한다. 마을에서도 손님 맛을 준비로 분주하다. 마을 부녀회에서는 김치를 새로 담고 음식을 준비하며, 민박집에서는 이불을 빨고 집안 청소를 한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청소를 하고 도시 손님들을 환영하기 위해 사물놀이를 준비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준비과정을 마을의 어촌



계장과 운영위원들이 챙기며 협회 및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어촌계장님들도 종종 있는데 80명 단체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는 대부분의 어촌계장님과 마을운영위원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바다는 맛있는 수산물과 역동적인 체험거리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촉각을 곤두세운다. 직접 행사를 진행한 뒤에는 몸무게가 줄 만큼 신경이 쓰이고 힘든 과정이다.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어 지난 6년 동안 무사고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이라.

### 아름다운 어촌, 아름다운 사람들

행사준비과정에서 담당자의 작은 실수에도 여행을 기대한 관광객에게는 큰 피해가 갈 수 있어 늘 준비과정을 체크하고 또 체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도 있고 때론 어촌의 실정이 따라주지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유독 까다롭거나 도리어 어촌마을에 민폐를 끼치는 관광객들을 만날 때도 있다. 그러나 행사를 끝내고 나면 너무 수고 많으셨다며 악수를 청하는 관광객들, 서울로 잘 올라갔냐며 전화를 먼저 주시는 어촌계장님들이 계셔서 가슴이 뿌듯해져 온다.

서울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 맞이할 걱정에 행사 며칠 전부터 소화불량에 시달렸다는 해남군 오산마을 오수현 위원장님, 마을에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기도 참 오랜만이라며 기뻐하시던 고흥군 남성마을 어르신들, 태어나 처음으로 갯벌을 봤다던 전남 전주시 풍남초등학교 학생들과 푸른바다를 태어나 처음 보았다던 케냐 출신의 교환학생 체릴(Cheryl Sheila Njeri Wanderi)...

아름다운 어촌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와 마케팅

‘마케팅’ 하면 어려운 전문용어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에서도 마케팅이 접목된다. 영업과 마케팅이 다른 점은 상품판매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품의 판매, 사후관리까지 고려하는 점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역시 철저

하게 마케팅적으로 접근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마을별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 참가층을 세분화(Segmentation)하고 고객에 맞는(Targeting) 프로그램운영을 한다. 행사 홍보를 위해 주요 일간지와 무료지 등에 타겟층에 맞는 보도자료를 보내고 광고를 진행하며 바다여행 사이트를 기반으로 키워드 광고, 뉴스레터 발송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행사를 끝낸 이후에도 행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여행의 감흥이 채 가시기 전에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생생한 동영상과 사진 및 후기 등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고객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충성고객들을 만들고 그 충성고객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또 입소문을 내어주며 어촌관광의 확대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행사홍보 및 고객관리 뿐만 아니라 행사의 준비하고 진행하는 현장에서도 동선과 참가비를 고려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여행상품을 홍보하며 일련의 과정들을 관리하고, 어업인들의 서비스마인드를 함양하는 등 흔히 7P라고 말하는 마케팅믹스가 적용된다. 어촌관광은 순수 아마추어 관광을 표방하지만 행사의 준비 및 기획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계획, 통합적인 마케팅관리(IMC)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 마케팅믹스(Marketing Mix) :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들의 묶음 [상품(product), 가격(price), 경로(place), 촉진(promotion), 과정(process), 물리적 근거(physical evidence), 사람(people)]

###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는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참여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접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좋은 취지의 행사가 많은 분에게 보다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본 행사에 한번 참가해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편안한 여행은 잊어주시길 바란다. 그 대신 활력 넘치고 역동적인 체험들과 맛있는 수산물을 푸짐하게 차려내는 어민들의 인심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어촌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 🍀